



#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들”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206-362-2278 | 연령회: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홍광철 세례자 요한

##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이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현존하신다.” 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한 하느님을 이루신다.” 삼위일체 교리는 부족한 인간의 머리로는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초자연적 계시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계시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를 창조된 사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어느 것도 이 신비를 적당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라고 불리고, 직장에서는 사장님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여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아버지요, 사장이요, 여보!”이지만 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프면 사장님도 아프고, 여보인 나도 아픕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초는 몸통과 심지와 촛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사랑으로 내어주는 관계, 사랑으로 하나된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의 몸통과 심지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클로버로 삼위일체를 표현합니다. 클로버 잎이 보통 세 개이니 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클로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느님을 엉뚱한 분으로, 머리 셋 달린 괴물로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의 신비로서, 계시로서 알려지는 진리입니다. 계시를 떠나서는 인식이 불가능한 진리이기에 나의 이성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삼위일체의 신비가 남김없이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삼위일체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큰 소리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또한 영광송을 바칠 때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문들도 모두가 아버지 하느님께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받으소서.” 믿음을 통하여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미사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저녁) 오후 7:30 (주일) 오전 8:00 / 10:00 오전 11:30 (학생) 오후 6:00 (청년)
월	오전 10:00
수/목/금/토	오전 10:00
화/수/목/금	오후 7:30

### 성사 안내

환자 봉성체	매달 첫 목요일 오전
병자성사	구역장을 통해 신청
성체강복	매달 첫 목요일 저녁미사 후
예비신자교육	(주일) 오전 8:20

### 학교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00
YG(고등부)	(주일) 오전 10:00
한국학교	(금) 오후 7:00 (토) 오전 9:30
안드레아 문화대학	(주일) 오후 1:00-4:00

## 기도에 전념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사도1,9).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모두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앞에서 절망을 했다가 부활을 체험하고 다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는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1,11)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만 쳐다보면서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도에 전념합니다. 나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나도 힘이 들 때,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는 기도의 응답과 맛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



도하기 싫고, 미사가기 싫고, 모든 것이 귀찮아 질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서 옆에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힘을 낼 엄두도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천사들처럼 그렇게 옆에서 격려해주고, 성실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형제자매들은 큰 힘이 됩니다. 구역모임도 큰 힘을 줍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함께 하고 있다가 형제자매들의 진심이 담긴 신앙체험을 이야기 듣게 될 때, “주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방전이 되면 충전을 시켜주어 늘 새로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듯이, 기도에 전념할 때 주님께서 언젠가 나를 충전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나는 언제나 충만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나를 더욱 힘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의 손을 꼭 잡아야 합니다. 기도에 전념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힘을 주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며, 함께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힘차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 나갑니다.

## 용서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의 증거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받고 말씀하신 후에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20,23)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 이들이 용서할 수 있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으며,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성령께 은사를 청하며 힘을 얻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마음이 없거나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이들은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 안에 머물지 않는 이들은 참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용서를 청하며 하나님께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 죄를 풀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의 용서권한을 주신 이유는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을 고통 속에서 벗어나 기쁨과 희망 속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두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초대를 받았으니 나는 기쁘게 “예”

하고 응답하며 그 삶을 살아 가면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이 27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 살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후 “증오”만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어머니를 용서하려고 했다면 결코 어머니에게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의 칼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그 칼에 단혀 평생을 후회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기 위해서는 성령

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미움의 칼을 버리고, 성령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한으로 용서를 청하는 이들에게 “조건 없이” 용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로부터 용서 받은 나도 내 형제자매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청하는 나”는 성령 안에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응답할 때 나는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청하면서 살아갑니다.

## 예수님의 승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지 40일 만에 부활한 육신과 영혼을 지니신 채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생활을 마치시고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세상을 떠나신 역사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강생하신 천주 성자께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완성하신 다음에 다시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낮추시어 아버지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로 아버지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완성하셨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은 성자 하느님의 자리에 다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권능과 힘과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

느님,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당신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온 생애를 순종하시며 사셨습니다.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언제나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당신 백성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었고,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나 또한 사랑과 자비와 용

서를 베풀어야 하며, 일상 삶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 안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과 육신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자비로우신 심판관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심판관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도들의 삶을 내 삶으로 만들며 주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 공동체 소식

### 서북부 꾸르실로 제 1차 피정

- 일시: 2018.6.30(토)-7/1(주일)
- 장소 : Palisade Retreat Center
- 참가비: \$200(개인 \$100/사무국 보조 \$100)
- 참가대상 : 모든 꾸르실리스파
- 신청마감 : 2018. 6월 3일
- 신청 문의 : 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 유아세례 신청

- 세례: 6월 10일(주일) 10:00
- 대상: 부모가 신자인 유아들
- 대부모님들은 6일(수) 저녁 미사에 참여하

셔서 대부모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꼭 들으셔야하고, 대부모 승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아세례의 대부모들은 대자녀들의 첫영성체, 견진성사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 성경 강좌 안내

• 구역모임을 위하여 사제와 수도자와 함께 하는 성경소그룹 모임을 시작합니다. 현재 각 구역에서 다니엘서, 요한 묵시록, 필리피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구역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구역모임에 참여하시면 더 큰 은총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셔서 관디다수녀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오전 10:00 다니엘서, 요한 묵시록  
 화요일 저녁 8:20 필리피서, 야고보서  
 목요일 오전 10:00 다니엘서, 요한 묵시록  
 목요일 저녁 8:20 필리피서, 야고보서

### 6월 성경 아카데미 안내

- 일시: 6월 16일 (토) 오전 10시 미사 부터
- 강좌 내용: 판관기

### 온라인 신립금 안내

• 온라인을 통해 교무금을 납부할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http://osvonlinegiving.com/4529>  
 많은 이용 바랍니다.